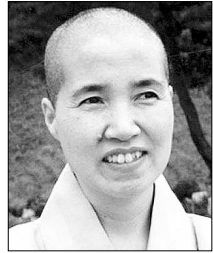


“함께 부처님 세상 만들어요”

복지 현장 누비는 비구니스님들의 '새해 서원'

놀이치료로 마음의 상처 보듬어요



◇상덕 스님



◇선재 스님

부처님의 자비를 말미 아닌 실천으로, 느낌과 감동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에 복지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상덕 스님. 6년 전 육수종합사회복지관을 맡았을 때만해도 다른 복지관을 찾아 하기에 바빴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을까? 상덕 스님은 고민에 빠졌다. 지역민들이 무엇을 원할까. 꼭 필요하건데 지원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던 중 아이들을 만났다. 팔짝 뛰어나다며 장난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아이들이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지체와 언어발달 장애 등을 겪는 것을 보았다.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놀이치료실을 열었다. 전문상담사들을 초빙해 어린이치료교육을 시키기를 3-4년, 얼마 전 치료상담실과 언어치료실, 놀이치료실 등으로 세분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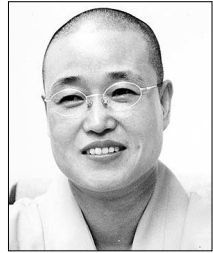
요즘은 참 기쁘다. 아들, 딸 없는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찾아 아이들을 보살피고 정을 나누는 모습이 훈훈하게 다가왔다.

올해에는 학교 내의 사회사무실의 역할을 강화해 금연교실과 왕따방지 등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더욱 관심을 기질 계획이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의 선재 스님은 '자비 복지'를 실천목표로 삼고 있다. 복지관의 특성화 사업으로 인근 지역 중·고등학교와 대학들과 연계해 학교사회사업을 펼치면서 '성 안내는 얼굴, 웃는 얼굴이 곧 공양이다'는 말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 그리고 결식아동들에게는 물리적인 지원보다 세심한 관심과 사랑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을 열고 장애아동들을 위한 언어·심리·놀이·미술 교육 등을 진행했다. 필요하면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보내기로 한다. 이유는 단 하나.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많이 보듬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된다'는 생각에 선재 스님은 오늘도 먼저 씨익-웃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간다. 아이들은 실망을 안겨주지 않는다.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언제나 그 천연의 순수함으로 화답해 온다.

어르신들에겐 사회참여가 '보약'



◇지완 스님



◇탄하스님

지완 스님은 항상 강조한다. 몸이 늙었다고 마음까지 늙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서울노인복지센터에는 어르신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노인 성문화 캠페인부터 환경·문화재 지킴이, 노인 직업 전문학교에 이르기까지. 지완 스님은 늘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제 위치와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자원들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복지관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지만,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큰 희망을 안겨드리는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잊지 않는다. "어르신들, 힘내세요."

탄하 스님은 복지관이 농촌지역에 위치

해 있는 만큼 직거래 장터 앞선과 가정봉사 서비스에 매진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 만큼 불평한 분들, 한창 일할 젊은이들이 떠난 시골마을에서 어르신들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고 싶기 때문이다. 도시만큼 체계적이고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지만, 같이 흥미있고 파스를 붙여주며 나누는 정도 크다고 믿는다. 소박하다고 소홀한 것은 아니다.

지완, 탄하 스님들뿐만 아니라 복지불사에 앞장서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은 척박한 복지환경과 재정지원 부족을 어려움으로 토로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이다. 너와 내가 하나이고 생이라는 굴레 속에 함께 돌아간다는 생각, 한번 더 웃음을 돌아 볼 수 있는 마음, 그게 봉사의 시작이며, 복지 즉 정도의 시발점이다.

“장애는 단지 결점일 뿐입니다”

능행 스님과 지용 스님, 성연 스님에게는 쏟아지는 질문이 많다. 복지 중에서도 가장 손이 많이 가고 힘들다는 중증장애자와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그냥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암 말기환자를 비롯한 중증노인환자들을 10여년째 보살피고 있는 정모마을의 능행 스

남에게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인간은 죽을 직전에 놓일 때 가장 고통스럽다. 당사자뿐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의 고통 또한 말로 헤아릴 수 없다. 그들이 죽을 앞에 허겁지겁 내몰리지 않고 영원히 고통스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극락세계로 인도하고 싶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이자, 이유라면 이유란다.

간혹 시신 앞에서 기뻐할 때도 있다. 고통 없이 편안히 잠든 모습이 감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잠시 그간의 고통픔을 위로받는다.

아침에 한 노인이 능행 스님에게 다가와 한 마디 건넸다. 칠십 평생을 살면서 처음 이곳에서 사람사는 맛을 느꼈노라고. 눈물이 많은 곳은 그만큼 기쁨이 찾아 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준다. 여건만 허락된다면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다.

제천장애인복지관의 성연 스님은 요즘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새해에 복지관을 이전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컴퓨터실, 목욕탕, 무료급식소, 치료실 등 기본시설도 확충하고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벌써부터 머릿속에 장애인들의 웃는 얼굴이 가득하다. 성연 스님은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을 평범하게 봐주기를 바란다. 장애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결점 같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스님은 장애인 고용문제에 민감하다. 의무 고용 조항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삶을 진정 생각하고 열어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고 싶다.

상락원의 지용 스님은 아이들 뒷바라지에 바쁘다. 봄이 되면 6명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4명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진



◇능행 스님



◇성연 스님



◇지용 스님

학하기 때문이다. 장애가 있는 만큼 신경 쓸 곳도 쟁겨야 할 것들도 많다. 게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아이들 집 방수공사와 담장 공사 등도 시작할 계획이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항상 믿고 따라주는 아이들이 있기에 힘이 솟는다. 지용 스님은 간혹 보살님들이 아이들을 찾아와 "아이고, 업이아 업."하고 한탄할 때마다 속상하다. 특별한 사람은 없다. 장애아들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의 자식인 장애아들도 똑같다.

김은경·오유진 기자

한국의 비구니 스님 <1> 광우 스님

대사회 활동 '본격화' 주역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생 수행에 몸 바쳐 오신 어르신 스님들도 많으신데... 수행 이야기를 꺼내 기엔 내가 많이 부족한 거 같구만.”



지난 해 비구니회관의 건립 및 개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서울 삼선교 정각사로 돌아가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전 전국 비구니회장 광우 스님. “그 동안 너무 말이 많았다”며 한사코 사양하는 스님을 조르다시피 수행담을 청하자 자신을 낮추는 대답으로 말문을 열었다.

광우 스님은 14세에 대구사범학교 입학 준비하기 위해 상주 남장사를 찾았다. 당시 남장사 조실은 스님의 아버지인 해봉 스님이었다. 스님이 처음으로 본 선방

치기도 했다. 때마침 최근 신문(현대불교 1월1일자)에 나온 문수사 기사를 발견한 스님이 반가운 미소를 짓는다.

문수사에서의 인연을 계기로 스님은 포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71년 우담바라회 발족...기반 다져

“포교는 타인에게 배우고 깨닫는 과정”

스님들의 참선 모습은 스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스님은 수행하는 스님들을 몰래 훑쳐보다 해봉 스님께 꾸중을 듣게 됐다.

“꾸중하러 오신 조실 스님께 여쭙지요, 왜 그렇게 스님들이 앉아계신지 하고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광우야’ 부르시길래 ‘에’ 대답했지요. 그러니 스님께서 ‘대답하는 그 놈이 무어냐고 되 물으시게요. 한참을 고민 끝에 모 르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바로 그걸 찾고 있는 거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스님이 첫 번째로 받은 화두이자 스님을 참선으로 이끈 길이었다. 15세에 출가한 이후로 스님은 참선을 놓지 않았고 해봉 스님, 청담 스님 등으로부터 “참선할 근거”로 인정받아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아미타경>, <법화경>을 비롯한 경전공부도 시작했다.

해방 후 스님은 선산 문수사의 작은 토굴에서 <선문철요>를 사경하고 참선하는 동안 마을 청년들에게 <초발심자경문>을 가르

깨닫기 시작했다. ‘현대인들에게 전법을 하려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이상을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에 1952년 동국대 입학을 결심했다. 스님은 대학에 입학한 최초의 비구니가 됐다.

졸업 후에는 대전 북천암, 서울 보문사 서별당, 대전 세등선원 등에서 수행을 계속해오다 1958년 정각사를 설립했다.

스님은 또 1971년 뜻 맞는 비구니 스님들의 원력을 모아 전국 비구니회의 전신인 ‘우담바라회’도 발족했다. 이후 지금까지 스님은 포교 뿐 아니라 비구니 위상과 총림을 발전시키는데 매진 해왔다. 스님은 스트레스와 회를 안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건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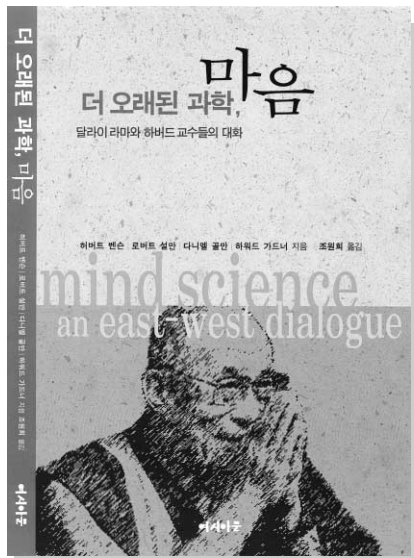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관세음 보살의 힘, 즉 자비의 힘을 생각하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세요. 마음속에 성품을 담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상대를 ‘상(相)’ 없이 대해야 합니다.”

한상희 기자

어서이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8881(대)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명상은 몸과 마음 건강에 큰 도움... 미국인 천만명 '명상 붐'

- <타임>지 보도



허버트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면 / 9,000원

마음

더 오래된 과학,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타임>지 최근호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 행동의학과 허버트 벤슨 박사가 연구한 명상할 때의 뇌상태 결과를 소개하는 등, 명상이 심장병, 암 등의 만성적인 난치성 질병의 고통을 예방하거나 완화한다고 소개했다. 또 우울증, 주의력 결핍증 등 심적 불균형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명상요법이 널리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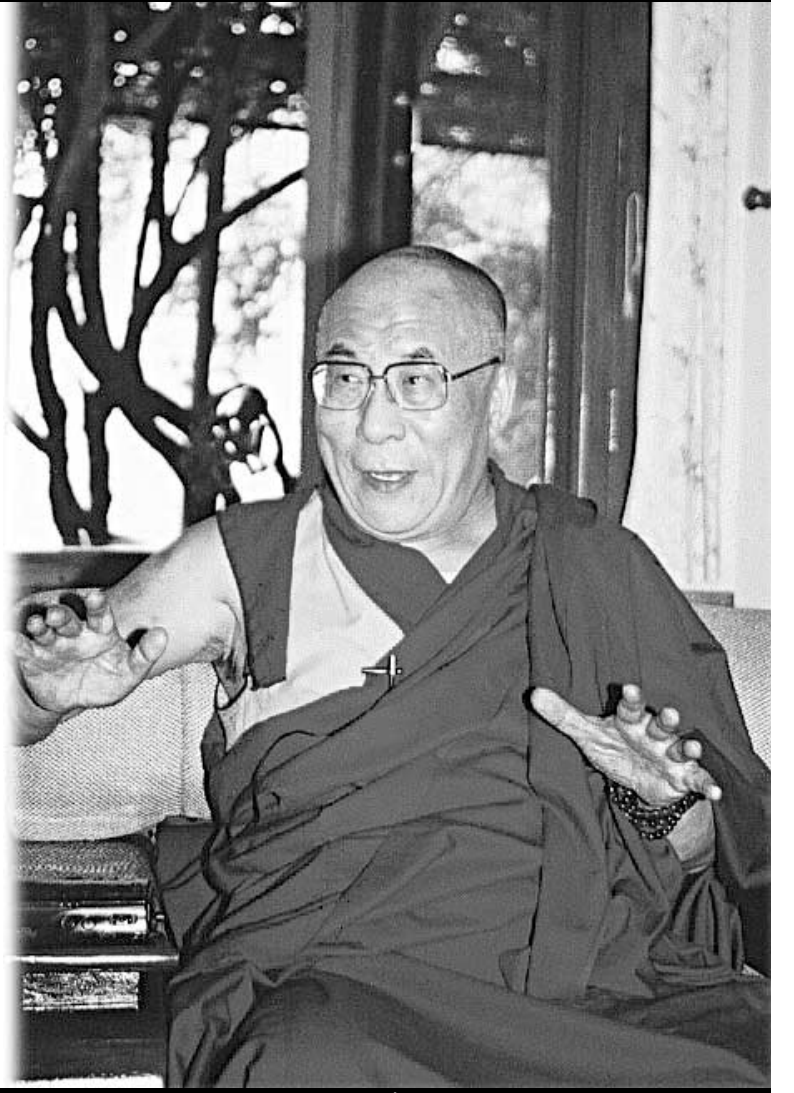
마음과 몸의 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된다 연구결과도 소개하고 있다. 하버드 의대를 대표하는 허버트 벤슨 박사 등 하버드 석학들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 마음과학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이다.

달라이 라마

“마음은 정신적 사상이 상호 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법보사는 02)737-0695로 연락 주십시오.

mind science